

기독교대학의 수월성에 대한 사회윤리적 연구*

조용훈(한남대 교수)

I. 서론

II. 기독교 대학의 수월성(excellence)과 정체성

III. 역사 속에 나타난 기독교 대학의 수월성

1. 한국 고등교육의 효시로서 기독교 대학
2. 기독교 교육이념의 철저성
3. 기독교 대학의 학문적 수월성
4. 기독교 대학의 도덕적 탁월성
5. 기독교 대학의 문화적 차별성
6. 기독교 대학의 탁월성에 기초한 사회지도력

IV. 결론

• **ABSTRACT** •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cellence of the Christian colleges and socio-political leadership in Korea. In the past the Christian colleges played a major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society and churches. This comes from the excellence of the Christian colleges.

The excellence of the Christian colleges in Korea consisted of four elements: uniqueness of Christian educational ideology, excellence of scholarship, excellence of morality, and difference from secular culture. The Christian colleges early stage in their history maintained strongly their Christian educational idea. If it seemed to impossible to hold this idea against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hey decided to close the colleges, as shown in the case of Soongsil college in 1938. However, in these days, the Christian educational idea replaced with the unreflected educational idea like as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literacy. Secondly, The Christian colleges in the past showed their academic excellence in the introduction of the western modern academic discipline to the Korean society. However, the Christian colleges in the present has been lost their academic excellence except some distinguished colleges. Many of them are called as 'second-class' or 'third-class' colleges. Thirdly, the Christian colleges in the past demonstrated their moral excellence in the extra curricular activities in the field of rural and suburb of urban community. This made them to take the good reputation from the outside of campus. Lastly, the Christian colleges in the past showed their difference in the new Christian way of life from secular colleges. They were heralds of the Good News as well as bringer of the civilized way of life. However, in the present, it is very hard to find the cultural difference between Christian colleges and secular ones. This gloomy realities challenge the Christian colleges to reflect themselves to retake their leadership in the society through recovering the excellence of scholarship, morality and culture.

Keywords: Christian university, academic excellence, moral excellence, cultural differency, social leadership

I. 서론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들은 근대 고등교육만이 아니라 사회와 교회의 발전에도 커다란 공헌을 했다. 기독교 대학들은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을 제시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지닌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사회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거꾸로 교회성장에도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10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기독교 대학의 사회적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미래의 한국사회와 교회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왜냐하면 대학은 사회와 교회의 지도력을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사회지도력과 관련하여 한국 기독교 대학의 자랑스러운 과거와 어두운 현재를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함으로써 우리시대 기독교 대학의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겠다. 기독교 교육이념의 철저성, 학문적 수월성, 도덕적 탁월성 그리고 문화적 차별성에 기초한 초기 기독교 대학들의 높은 사회적 위상과 평판이 어떻게 사회적 영향력을 형성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대학의 현재적 문제들과 미래적 과제도 부각될 것이다.

II. 기독교 대학의 수월성(excellence)과 정체성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은 대학의 탁월성을 통해 강화되고 발전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월성은 기독교 대학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이라는 말이 결코 ‘이류’(二流) 혹은 ‘삼류’(三流)라고 하는 열등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에 채플과 선교활동, 기도회

가 있다 하더라도 수월성을 성취하지 못하면 대학의 경쟁력은 물론 좋은 기독교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도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학이 서열화되고 학벌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기독교인조차 자기 자녀들을 수월성이 없는 기독교 대학보다는 일반 명문대에 진학시키려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아무리 좋은 기독교 교육이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수한 교수와 학생을 모집하지 못한다면 기독교적 정체성은 물론 대학의 생존까지 어려워질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체제로 개편하려고 하는 현실에서 기독교 대학이 수월성을 확보하는 일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대학은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수월성 면에서 경쟁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물론 기독교 대학이 이른바 명문대학의 반열에 오른다 하여 저절로 좋은 기독교 대학이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 대학은 교육이념이 일반대학과 다르며, 따라서 수월성의 판단기준도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독교 대학은 또 하나의 대학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기독교 대학의 수월성은 창학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관련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오늘날 대학이 수십 개의 학과와 수천 개의 학과목으로 구성된 멀티버시티(multiversity)로 발전해 가면서 일관된 교육목적이나 비전이 사라지고 있다.¹⁾ 대학마다 정보화나 세계화를 외치며 우수한 신입생 유치와 졸업생 취업률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 대학은 단순한 지도자 양성이 아니라 ‘기독교적’ 성품과 가치관을 지닌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정신이란 성서와 교회의 역사,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진리로 인식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유와 섬김의 삶을 실천

www.kci.go.kr

1) 클라크 커, 이형행 역, 『대학의 효용』(학지사, 2000), 42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대학의 수월성은 도덕적 탁월성과도 관련된다. 대학은 새로운 진리를 연구하는 연구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발견된 지식을 학습하고 학생들을 교양을 지닌 건강한 인격으로 교육하는 곳이기도 하다. 대학이 교육하고자 하는 학생은 단지 전문적 지식과 직업적 능력만을 지닌 기술인 혹은 기능인이 아니라 건강한 인격을 지닌 자유 교양인이다. 특별히 기독교 대학은 직업인 교육에 앞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격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참 인격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은 일반 대학과는 달리 대학 구성원의 도덕적 탁월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반대학은 물론 기독교 대학조차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직과 비리행위들로 인해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기독교 대학의 수월성은 문화적 차별성과도 관련된다. 대학은 학문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문화적 대안공동체이다. 특별히 기독교 대학은 기독교적 대학문화의 창조를 통해 세속문화를 변혁시키라는 문화위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대학들은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세속적 대중문화의 아류로 전락해가고 있다.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물질주의, 소비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적 가치관과 문화가 지배적 문화로 발전해 가고 있다.

III. 역사 속에 나타난 기독교 대학의 수월성

1. 한국 고등교육의 효시로서 기독교 대학

한국 고등교육의 역사는 기독교 대학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1906년 대한제국과 총독부의 공식적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숭실대학(Union Christian College)을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효시로 본다.²⁾ 뒤이어 1909년에는 배재대학이, 1910년 이화학당에 고등과(高等科)가 설립되었다. 이화학당이 우리나라 여성의 고등교육에 끼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이다. 이태영이 주장하듯, 이화학당의 고등교육 역사는 ‘한국 여성교육의 역사’요,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³⁾ 1915년에는 경신학교 대학부와 배재학당 대학부를 포함하는 조선기독교대학(Chosen Christian College)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대학의 형태로 설립되어 이후 연희대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 대학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물론 사회 정치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구문화를 소개하고 민주적 시민의식을 교육함으로써 유교적 신분질서 아래 있던 조선사회를 근대 시민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공헌했다.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독립정신을 함양하고 수많은 애국지사를 양성함으로써 독립운동에도 크게 공헌했다. 특히, 일제가 식민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선인들에게 일체의 고등교육과 고등기술 전수를 금지하

2) 유영렬, <최초의 근대대학: 숭실대학>, 대학사연구회 편, 『전환의 시대 대학은 무엇인가』, (한길사, 2000), 78-82면.

3) 이태영, <한국 여성과 고등교육>, 『한국의 여성 고등교육과 미래의 세계』 이화창립 100주년기념 학술대회 (이화여대출판부, 1987), 16면.

는 우민(愚民)교육 시기에도 기독교 대학들은 수많은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해방 후 한국사회에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한 예로써 우리는 숭실대학을 졸업한 3인(노경오, 차이석, 최광옥)의 행적을 통해서 당시 기독교 대학의 위상과 사회지도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⁴⁾

2. 기독교 교육이념의 철저성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은 기독교적 교육이념에 철저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학문활동에 있어서 유일한 진리의 토대로 삼고, 복음을 교육의 중심원리로 삼으며, 예수가 보여주신 섬김과 봉사의 삶을 교육목표로 삼았다. 당시 기독교 대학들의 교육목적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기초하여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여 교회는 물론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게 하는 것이었고, 둘째, 교육선교를 통해 한국사회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기독교 대학이 추구한 인재를 단순한 사회지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닌 인재였다.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한 졸업생들로 하여금 나중 교회나 기독교 계통의 각종 학교의 교사는 물론,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도자로 양성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저한 기독교 교육이념을 견지했다. 모든 교직원은 반드시 기독교적 교육이념에 공감하는 헌신된 기독교인이어야 했고, 심지어 학생들도 기독교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데 관심을 보였다. 대학 구성원들은 이러한 교육이념을 채플과 같은 종교행사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독교 과목의 강의나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 속에

4) 노경오는 졸업 후 목포에서 교육사업을 했다. 차이석은 독립운동단체인 신민회에 가입하여 안창호와 함께 대성학교를 경영했고, 3.1운동 후에는 상해로 망명하여 독립신문 기자로, 이후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했다. 한편, 최광옥은 동경고등사범에 유학한 후 귀국하여 YMCA 초대 종교부 간사를 역임하고 독립협회의 주요 회원의 한 사람으로 활동했다: 「숭실대학교 90년사」(1987), 94-95면 참고.

서 구현하려고 노력했다. 기독교 대학의 기독교 교육이념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확고했는지는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기독교적 교육이념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숭실대학이 1938년 자진 폐교를 결정한 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⁵⁾

오늘날 모든 기독교 대학들이 홍보책자에 기독교 교육이념을 내세우고 있지만 강의실이나 연구실, 그리고 행정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하는지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많은 기독교 대학에서 교육이념의 ‘탈(脫)기독교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대학들마다 세계화, 정보화, 특성화를 교육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학적 비판이나 토대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대학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독교인 학생들 유치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서인지 대학의 이름과 학과의 이름에서 ‘기독교’란 말을 없애기 시작했다. 연합기독교대학(Union Christian College)이 숭실대학으로, 조선기독교대학(Chosen Christian University)이 연세대학으로, 그리고 계명기독교대학이 계명대학으로 개명(改名)했다. 학과명에서도 탈기독교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1947년 우리나라 최초로 이화여대는 기독교사회사업학과를 개설했다가 1958년에는 사회사업학과로 개명하면서 ‘기독교’ 명칭을 삭제했다.

한편, 1980년대 들어 신학대학들이 기독교 종합대학으로의 체제개편을 단행했는데, 이 과정 역시 대학의 기독교적 정체성과 교육이념의 혼란을 야기하였다.⁶⁾ 왜냐하면 대학 내에 새로 생기는 학과들과 기존의 신학

5) 이 밖에도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가 운영하는 사립학교인 광주의 숭일중학, 수피아여학교, 목포의 영흥중학과 정명여학교, 순천의 매산학교, 전주의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 그리고 군산의 영명학교 등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자진 폐교했다: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기독교문사, 1971), 184면.

6) 1976년에는 중앙신학교가 강남사회복지대를 거쳐 1990년에는 강남대학으로, 1980년에는 한국신학대학이 한신대로, 1990년에는 대한신학교가 대신대학을 거쳐 안양대학으로, 1992년에는 피어선 신학대학이 피어선 대학을 거쳐 평택대학으로, 1994년에는 협성신학대학이 협성대학으로, 그리고 1998년에는 전주한일신학교가 한일장신대학으로 각각 대학

과 사이의 상관성이 약해지면서 전체 학과를 통합할 수 있는 통일적 교육이념인 기독교 정신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기독교학생이 증가하여 수적 다수가 됨으로써 대학에서 기독교적 분위기나 문화가 자연스럽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교육목표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의 탈기독교화를 살필 수 있다. 계명대학을 예로 보면, 초창기에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라고 기독교 교육목표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만,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진리, 정의, 그리고 사랑의 나라를 위해”로 바꿈으로써 ‘기독교’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특수 기독교적인 개념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교과과정에서도 기독교 교육이념의 후퇴를 관찰할 수 있다. 모든 기독교 대학에서 예외 없이 채플시간 수는 줄어들고, 기독교 관련 교과목의 학점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과목의 운영도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되고 있다. 초기 기독교 대학은 대부분 채플시간이 매일 있었다. 한 예로, 1895년 배재대학에서는 매일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정상수업에 임했다. 채플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던 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그 결과 배재대학에 들어와서 사흘이 지나면 비기독교 학생이라도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 변화되었다고 한다.⁸⁾

해방 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급속한 양적 팽창도 기독교 대학의 탈기독교화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저기 교수자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기독교 교육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헌신된 기독교인 교수를 찾기가 점점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기독교 대학의 교수임용 과정에서 신앙의 유무는 부

체제를 변경하였다.

7) Park, So-Young, "Keimyung University and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evelopment of Their Higher Christian Education", Paper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Feb. 2006), p.3.

8) 『배재백년사: 1885-1985』, 1989, 49-50면.

차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 후에는 ‘우수학자 유치’라는 이름 아래 교수들의 신앙문제는 임용과정에서 중요 사항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한편, 기독교 대학의 지적 풍토는 급속히 세속화되었다. 합리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학문방법론만이 정당한 학문기초로 통용되었고, 근래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기독교는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 하나의 종교로서만 인정되고 있다. 그 결과, 이제 기독교 대학에서조차 종교활동은 강의실이나 연구실 같은 대학의 공(公)적 공간이 아니라 동아리활동과 같은 사(私)적 공간에만 허용되고 있다.

3. 기독교 대학의 학문적 수월성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들은 신학문의 요람이었으며 서구문명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통로였다. 그래서 사회발전과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는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기독교 대학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나아가 조선을 일본에 동화시켜 조선민족을 없애려고 했다. 1911년 조선교육령을 통해 일제는 제국(帝國)신민에게 필요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만을 강조하고 고등교육 실시를 거부했다. 이런 이유에서 일제는 사립대학의 설립조건을 까다롭게 했으며, 이미 설립된 대학에서조차 연구활동을 제한하고 교육활동만 하게 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 대학들은 우수한 교수진을 통해 근대적 학문들과 서구문화를 소개함으로써 기독교적 교양을 지닌 인재들을 양성했다.

초기 기독교 대학들의 학문적 수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가 있다. 한 예로,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학 강의가 배재학당에서 이루어졌다. 1897년에서 1898년 사이에 윤치호가 과학이론과 천문학을 배재학당에서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이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를 넘어 전세계와 전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⁹⁾

다른 예로써, 한글의 학문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주시경은 1894년 9월에 머리를 깎고 배재학당에 입학한 배재학생이었다. 그는 한글의 우수성과 유용성, 편리성을 연구했다. 1896년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하여 맞춤법을 연구하고 사전을 편찬하고 국어문법을 연구함으로써 국문학 연구와 발전의 토대를 놓았다.¹⁰⁾

또 다른 예로, 연희전문은 경성제대에서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지던 조선학 연구에 맞서서 독자적인 조선학 연구를 통해 민족주의적 학문을 발전시켜 나갔다. 당대의 석학들인 정인보, 최현배, 손진태, 이인영, 백낙준 등이 강의를 담당했으며 이후 국학운동의 주체가 되었다. 연희전문의 학문적 탁월성은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귀국 후 한국의 지성계에 공헌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¹¹⁾

이러한 기독교 대학의 학문적 수월성은 비교적 뒤늦게 설립된 기독교 대학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1956년에 설립된 한남대학의 경우, 설립자인 윈튼(W. A. Linton) 박사는 강의를 정시에 시작하여 정시에 마치고, 매 시간마다 과제를 부여하며, 교수와 학생은 결강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학사원칙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적당히 공부하고 학점을 따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성적 평가는 소수점 이하까지 엄격하고 정확했다. 이런 철저한 학사원칙 덕분에 1962년 1월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고시인 대학졸업 학사고시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학생이 100% 합격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¹²⁾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 대학들은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학문적 수

9) 『배재백년사』, 68면.

10) 『배재백년사』, 126-128면.

11) 문과대 학생의 경우, 1940년 현재 총 졸업생 268명 가운데 69명이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갔을 정도다.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편찬위원회,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45-51면.

12) 조용훈 외, 『현대사회와 인성교육』(한남대학교출판부, 1999), 250-251면.

월성을 상실한 채 중하위권 대학에 머물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학교 재정의 상당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기독교 대학들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국립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특정 기업이나 재력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사립대학들과의 경쟁에서도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독교 대학들이 학문적 수월성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노력은 물론 설립주체인 기독교 재단과 교회의 관심과 기여가 적극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4. 기독교 대학의 도덕적 탁월성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들은 학문적 수월성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도 탁월성을 보여 일반사회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었다. 한 예로, 영국의 유명한 수필가요 여행가였던 비숍(I. B. Bishop) 여사가 1897년에 쓴 글에서 당시 배재학당 학생의 도덕적 탁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분명히 조선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교육적, 도덕적, 지적 영향을 미쳐왔고 또 현재까지도 미치고 있는 기관은 배재대학(유용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학교)이다....이 대학은 분명히 결정적인 인상을 (사회에) 주고 있으며, 자유주의 교육 이외에도 그 넓은 지성관과 조선의 구원을 확증하는 심화된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다.”¹³⁾

당시의 기독교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도덕성 함양을 위해 엄격한 기율을 강조했으며, 캠퍼스 내에서 흡연은 물론 음주나 도박 그리고 음란서적

13) 『배재백년사』, 70면 인용.

을 금지했다. 1890년에 발표된 배재학당 학칙에는 이같은 도덕적 엄격성이 잘 나타나 있다.¹⁴⁾

“제8조: 학생은 반드시 죽대가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예(禮)를 지키며, 국법을 범한 자는 법관에게 넘긴다. 제9조: 학교의 건물이나 용기(用器)를 더럽히거나 파상(破傷)하면 손해를 배상한다. 제10조: 학교의 책이나 기물(器物)이나 자기의 것이 아니면 일체 가지지 말고 맡은 이에 돌려놓아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맡은 이는 그 값을 문토(問討)한다. 제11조: 병(病) 핑계하고서 결석하지 말며, 술과 노름과 못된 말과 음란한 책을 읽음을 금한다.”

이 외에도 초기 기독교 대학의 도덕적 탁월성은 지역교회를 위한 봉사활동에도 잘 나타나 있다. 배재대학생의 경우 1890년에 ‘노방전도대’를 만들어 서울의 종로거리를 비롯한 골목에서 열성적인 전도를 했다. 1922년에는 종교부와 음악부가 합동으로 ‘지방순회전도대’를 조직하여 지방을 순회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농촌교회들을 부흥시키는데 공헌을 했다. 이들에 의해 서울에는 이태원교회(1922), 홍제동교회(1922)가 각각 건립되었다. 방학이 되면 학생들은 농촌으로 내려가 농촌교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¹⁵⁾ 숭실대학의 경우에는 1900년에 ‘학생전도대’가 조직되어 전도활동을 활발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제주도와 중국의 산둥성에 까지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가 되었다.¹⁶⁾ 연세대학의 경우에도 세브란스를 졸업한 김윤식을 1919년 조선선교회 의료선교사로 중국 산둥지역에 파송할 정도로 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¹⁷⁾

14) 『배재백년사』, 51-52면.

15) 『배재백년사』, 246-248면.

16) 『숭실대학교90년사』, 69면.

17)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편찬위원회,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282면.

한편, 기독교 대학은 낙후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통해서도 도덕적 탁월성을 보여 주었다. 대부분의 기독교학생들은 자발적인 학생봉사활동에 참가했다. 도시빈민구제, 농촌봉사활동, 야학 지도를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그리스도의 봉사정신을 실천하려 노력했다. 한 예로, 1920-30년대 연세대학 학생회는 빈민구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과 학생회와 공동으로 자선음악대회를 개최해서 입장료 수입과 교수 및 학생 헌금을 모금했다. 1934년 여름에는 남부지방의 수해민을 돕기 위해 봉사대를 파송했다는 기록도 있다.¹⁸⁾ 이같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히 농촌봉사활동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기독교 대학의 사회봉사의 전통에 힘입어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사회사업 교육이 시작된 것도 이화여대의 기독교 사회사업학과(1947년)에 의해서였다. 1950년대 말에는 4개의 사회사업학과 중에서 서울대학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가 모두 기독교 대학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에도 70여개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중 절반 이상이 기독교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¹⁹⁾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 대학의 도덕적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학구성원의 도덕적 탁월성이 사라지면서 기독교 대학은 또 하나의 대학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학문적 정직성이 사라지면서 시험의 부정행위나 리포트의 표절과 베끼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성(性) 가치관에 있어서도 기독교 대학 학생과 일반대학 학생사이에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 혼전 성문제나 동거문제들에 대해 점점 더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으나 책임적 성을 위한 윤리관은 아직 충분할 정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에 따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18)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편찬위원회,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278-281면

19) 박종삼, <신앙의 눈으로 본 사회사업학과 교육>. 숭실대 신앙과학문 연구회, 『신앙의 눈으로 본 학문 교육 봉사』 (숭실대출판부, 1999), 58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이 많아지고, 직업선택에서도 ‘경제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도덕성 상실도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5. 기독교 대학의 문화적 차별성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은 학문적 수월성이나 도덕적 탁월성에서만 이 아니라 문화적 차별성에 있어서도 일반대학과는 뚜렷이 구별되었다. 다만 신학자 송(C. S. Song)이 지적한대로, 원시적이고 폐쇄적이며 정태적인 아시아에 있어서 기독교 대학의 등장은 ‘복음의 사자’(heralds of the Good News)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전달자’(bringer of the civilized way of life)였다.²⁰⁾ 예로써, 배재학당의 학생들은 초기에는 일정한 제복이 없이 평소에 입던 도포에 큰 갓을 쓰고 다녔으나 1897년부터는 제복과 제모를 만들었다. 이 모습은 당시 개화청년의 상징이 되었고, 서울 장안의 명물이 되어 배재의 자랑거리가 되었다.²¹⁾ 다른 예로, 숭실대학의 문화적 탁월성에 대하여 당시의 잡지 <조광>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조선에서 최고학부이었던 숭실대학에서 공부하는 그 당시의 학도들은 참 말 인격에 있어서 학식에 있어 조선의 지도자 됨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조선문화의 연원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또는 정치적 여러 가지 문제도 숭실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시작되었던 것도 사실이요, 학술용어 웅변술 ‘스포츠’를 비롯하여 심지어 의복의 ‘맵시’까지도 숭실대학에서 모범을 보여 왔던 것이다. 이리하여 중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동경하는 엄연한 목표가 되어왔고, 서양 사람들에게도 ‘유니온 크리스천 칼레

20) 이계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미래의 과제>, 대학선교학회, 『대학과선교 2집(2000)』, 10쪽.

21) 『배재백년사』, 67-68면.

이지'라면 아는 사람이 꽤 많게 되었던 것이다.”²²⁾

한편, 노동이 천시되던 당시에 기독교 대학들은 근로장학생제도를 통해서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쳤음은 물론 학생들의 경제적인 자립정신을 함양하도록 도왔다. 그 예로 배재대학은 학교 지하실에 인쇄소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공부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²³⁾

하지만 오늘의 대학문화는 기독교 대학에서조차 더 이상 일반 사회의 대안문화가 되지 못한다. 세속적 대중문화의 영향 아래 대학에서 대학문화의 고유성이 사라지고 있다. 대학들이 새로운 실험정신에 따라 새로운 대안문화를 창조하기보다는 ‘대중문화의 아류’(亞流)로 전락해가고 있다. 1970년대만 해도 대학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념적 비판과 군사독재권력에 저항하는 투쟁행동을 하면서도 낭만이 어우러진 고유한 대학문화를 지니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서구문화에 대한 대안으로 전통문화 발전을 위하여 탈춤과 민중가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오늘날 대학들은 소비문화와 향락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고유한 대학문화를 잃어가고 있다. 단적인 예로, 대학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학의 축제를 보더라도 학술행사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다만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노는 프로그램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음주문화도 심각하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녀 대학생 100명 중 92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고, 이중 82.5%는 술자리에서 5잔 이상 과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 신입생이 입학하면 학과별, 동아리별 신고식부터 시작해서 학과 모임, MT, 개강파티, 종강파티, 축제 등 온갖 모임에 의례적으로 술판이 벌어진다. 이런 과도한 음주행위는 학생들의

22) 유영렬, <최초의 근대 대학: 숭실대학>, 92면 재인용.

23) 『배재백년사』, 51-52면.

24) <한국경제신문>, 2002년 3월 3일.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학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된다. 한편, 대학의 놀이문화도 염려스럽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대학생의 23.5%가 유흥장을 찾고, 11.4%는 특별한 일이 없이 빈둥거리고, 12.1%는 대화와 토론, 나머지 11%는 스포츠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가시간 활용은 외국 대학생들이 주로 스포츠(48%), 독서(23.7%), 그리고 동아리활동(18.8%)을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수동적이고 소비적임을 알 수 있다.²⁵⁾

6. 기독교 대학의 탁월성에 기초한 사회지도력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은 위에서 언급한 학문적 수월성, 도덕적 탁월성, 그리고 문화적 차별성을 통해 당시 사회로부터 좋은 평판과 높은 위상을 지닐 수 있었다. 특히, 대학구성원의 사회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대학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기독교 대학은 근대적 시민교육과 신학문의 보급을 통해 유교적 봉건사회의 개화와 시민사회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남녀차별이나 관존민비, 빈부차별과 같은 봉건사회의 가치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시민적이고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교육했다. 한 예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육은 이화학당을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만 해도 유교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아래 여성은 남성의 예속물에 불과했으며, 자식 생산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화학당의 설립은 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은 물론 한국사회의 여성지도력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한편, 기독교 대학은 과학과 기술, 농업과 상업 같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연구와 교수활동을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한 예로써, 숭실대학은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해 1931년 농과(農

25) 이현청, 「한국의 대학생」(원미사, 1999), 233-235면.

科)를 설치하였는데, 당시 동아일보는 “농과전문설립, 공헌이 많기를 기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평양 숭실전문학교가 농과를 신설하여 당국의 인기를 얻은 것은 시의에 적한 일로 앞으로 조선사회를 위하여 다대한 공헌이 있을 것을 믿는다”고 하였다. 조선일보 역시 “숭실농과전문의 설립-주목할만한 종교교육”의 표제 아래 숭실대학이 종교교육기관으로 조선 문화와 조선의 산업향상에 크게 공헌했음을 인정하고 기대감도 표현하였다.²⁶⁾ 실제로 숭실대학 농학과는 <농민생활>이란 잡지를 만들어 과학적 영농법을 보급시킴으로 농촌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²⁷⁾ 그 외에도 연희전문의 전신인 조선기독교대학이 설립당시부터 상과(商科)를 설치한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한국사회가 유교적 전통에 따라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위계질서가 분명해서 상인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초기 기독교 대학은 수많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고, 각종 단체를 통해 독립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의 독립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정치운동이며 자주적 독립운동 단체라 할 수 있는 독립협회가 서재필과 윤치호, 전덕기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물론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의 학생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 운동조직임은 잘 알려져 있다. 기독교 대학생들이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자 숭실학교 학생들은 수업을 전폐하고 을사조약 반대시위에 나섰다. 105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변인서, 차이성, 선우혁, 김두화, 길진형, 윤원삼, 안세환 등이 숭실학생이었다. 3.1 운동 당시에도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포함된 박희도와 김창준 역시 숭실학생이었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있는 다음 해 숭실전문학생과

26) 『숭실대학교90년사』, 136-137면.

27) 『숭실대학교90년사』, 69면.

숭실중학생 600여 명의 만세시위가 있었는데 그 때 검거된 학생 173명 중 숭실전문학생은 67명이나 되었다.²⁸⁾ 한편, 3.1독립만세시위 때 구속된 김원벽, 김상덕, 하태홍, 김한영, 최평집, 이병주, 서광진, 최치완, 박태화, 윤기성, 윤대진, 강우석, 송기주 등은 연희전문학생이었다.²⁹⁾ 이날 시위에 참가한 후 체포되어 고문을 받은 김병호, 장대진, 장용하, 김기진, 신봉조, 이병선, 정종연, 임창호, 진번 등은 배재학생이었다.³⁰⁾ 당시 일본 헌병대의 보고서를 보면 기독교 대학생의 사회의식과 민족의식이 어떠한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학생 및 기독교인들과 같은 외래사상에 접촉한 자들은 그들의 머리 속에서 독립사상이 너무 깊이 박혀 있으므로 평생 동안 그것을 빼어 버릴 수 없으며 장차 이들을 동화시켜 선량한 신민(臣民)으로 만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³¹⁾

기독교학생의 사회참여는 다양한 학생단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독립협회의 외곽단체 혹은 자매단체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협성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자치단체로서 1896년 11월 30일에 조직되었다. 설립목적은 첫째, 학생들의 애국심을 기르고, 둘째, 전국학생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셋째, 학생신분으로서 학구열과 학문활동에 정진하며, 넷째, 전국 동포를 계몽하는 것이었다.³²⁾ 한편, YMCA는 독립운동은 물론 야학이나 농촌운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계몽에 관심을 기울였다.³³⁾ 1920년대

28) 유영렬, “최초의 근대 대학: 숭실대학”, 93-100면.

29)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편찬위원회,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116면.

30) 『배재백년사』, 236면.

31) 『배재백년사』, 237면 재인용.

32) 『배재백년사』, 84-85면.

33) 배재학당의 기독교학생회는 1901년 YMCA 국제위원회의 파송으로 한국에 와 있던 질레트(P. L. Gillet)에 의해 생겨났으며, 1916년에는 숭실대학과 연희전문대학에도 YMCA가 조직되었고, 1917년에는 배재대학에서 개편조직되었고, 1920년대에 들어서면 여학생단체인 YWCA도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게 된다: 김광률, <한국 학생 기독교 활동의 동향>, 이계준 편, 『기독교 대학과 학원 선교』(전망사, 1997), 325-326면.

에는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조선학생대회가 열렸다. 1920년 5월 9일, 연희전문 학생을 중심으로 약 1천여 명의 학생이 정동교회에서 조선학생대회를 개최했는데, 연희전문의 김윤경이 회장, 세브란스의전의 김찬두가 부회장이었다. 나중 이 단체는 전국에 약 2만 여명의 회원을 지닌 조직으로 발전했는데, 이 단체는 조선 학생의 친목과 단결은 물론 조선 물산장려, 지방열(地方熱) 타파 등을 통해서 사회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³⁴⁾

기독교 대학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 대학은 교회성장에 필요한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함으로써 한국교회의 발전에 공헌했다. 숭실대학의 경우, 1907년까지 총 33명의 졸업생 중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5명, 전도사가 1명이나 되었다. 그 외에도 졸업생 대부분이 장로나 집사로 교회의 중직을 맡아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³⁵⁾

1960년대를 전후해서는 우리나라 대학가에는 여러 대학생 선교단체가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다. 1952년에 학생신양운동(SFC: Student for Christ), 1956년에는 한국기독교학생회(IVF), 1958년에는 대학생선교회(CCC)와 쥘이선교회(JOY), 1960년에는 십대선교회(YFC: Youth for Christ), 1961년에는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 University Bible Fellowship), 1967년에는 네비게이토선교회(Navigator), 1973년에는 예수전도단(YWAM: Youth With A Mission)이 각각 설립되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 대학생 선교단체들의 활동은 단순히 캠퍼스 복음화를 넘어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해외 선교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들은 캠퍼스 안에서 전도

34)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편찬위원회,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119면.

35) 『숭실대학교90년사』, 97면.

와 성경공부를 통해 수많은 학생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켰고, 양육과 제자훈련을 통해 학생들을 목회자나 선교사로 헌신하게 했다. 이들을 통해 캠퍼스 안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기도모임, 성경공부모임, 교제모임, 그리고 찬양모임은 지역교회의 신앙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이들 대학생 선교단체들은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대학들이 교회나 사회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대에 못 미친다. 한동안 학생운동이 대안문화를 창조하고 민주화운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영향을 끼쳤으나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학생 선교단체들조차 회원수의 급감으로 인해 단체의 생존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유럽에서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더불어 학생운동은 방향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 소비사회의 급속한 확산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은 극단적 개인주의와 정치적 냉소주의, 그리고 소비주의에 빠져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취업난은 기독교대학생들조차 사회문제나 정치문제 보다는 개인의 취업과 진로 문제에 더 많이 관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사회적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IV. 결론

한국 기독교 대학의 역사는 한국 고등교육의 역사이며, 사회지도력의 역사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초창기 한국 기독교 대학들은 대학의 기독교적 교육이념의 철저성이라는 측면에서 만이 아니라 학문적 수월성, 도덕적 탁월성, 문화적 차별성이라는 면에서 일반 대학과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다. 이런 탁월성은 일반사회로부터 기독교 대학에 대한 높은

위상과 평판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기독교 대학은 문화의 선구자였고 사회의 지도자였다. 물론 이런 기독교 대학의 사회적 영향력은 교회의 선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구문명을 배우고 민족의식을 실천하기 위해 의식있는 젊은이들이 기독교 대학을 선호하고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대학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은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로 성장해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독교 대학들은 특수한 기독교적 교육이념을 희석시키고, 학문, 도덕 그리고 문화면에서의 수월성이나 일반대학과 구분되는 차별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그 결과 기독교 대학이 수많은 대학들 가운데 ‘하나의 대학’, 그것도 ‘이류’ 혹은 ‘삼류’의 대학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 대학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와 교회를 위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미래의 한국사회의 지도력은 결국 대학에서 양성되며, 건강한 기독교 지성이 사라지면 교회 역시 건강성을 잃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적 교육이념, 학문적 수월성, 도덕적 탁월성, 문화적 차별성 회복을 통해서 사회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 대학은 교육이념과 목표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학문적 수월성을 성취하기 위해 신앙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학문성에서도 탁월한 교수자원과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도덕적 탁월성을 성취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채플과 기독교 과목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교육방법의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적 차별성을 위해 물질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소비적인 세속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물론 수월성 자체가 기독교 대학의 최종적 목적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 대학은 수월성 성취를 통해서 더 궁

극적인 목적, 즉 진리탐구와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대학경쟁력과 수월성을 위해 기독교적 정체성까지 약화시키거나 포기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참고문헌

- 김광률, <한국 학생 기독교 활동의 동향>, 이계준 편, 「기독교 대학과 학원 선교」(전망사, 1997).
-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기독교문사, 1971).
- 박종삼, <신앙의 눈으로 본 사회사업학과 교육> 숭실대 신앙과학문 연구회, 신앙의 눈으로 본 학문 교육 봉사. (숭실대출판부, 1999). 「배재백년사: 1885-1985」, (1989). 「숭실대학교 90년사」(1987).
-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편찬위원회,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 조용훈 외, 현대사회와 인성교육. (한남대학교출판부, 1999).
- 클라크 커, 이형행 역, 「대학의 효용」. (학지사, 2000).
- 이계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미래의 과제”, 대학선교학회, 대학과선교 2집 (2000).
- 이태영, “한국 여성과 고등교육”, 「한국의 여성 고등교육과 미래의 세계」. 이화창립 100주년기념 학술대회 (이화여대출판부, 1987).
- 이현청, 「한국의 대학생」. (원미사, 1999).
- 유영렬, <최초의 근대대학: 숭실대학>, 대학사연구회 편, 전환의 시대 대학은 무엇인가, (한길사, 2000).
- Park, So-Young, "Keimyung University and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evelopment of Their Higher Christian Education", Paper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Feb. 2006).

논문투고일: 2007.10.24

심사개시일: 2007.11.06

심사완료일: 2007.11.12